

LG, 영건·자신감·팀워크를 얻었다

베이스볼 플러스

김기태 감독이 말하는 4월의 3가지 소득

- 1 이병규 등 주전 대신 김용의 등 활약
주전·비주전 전력차 줄여 '5할 승률'
- 2 잘 넘긴 3연패, 선수들 자신감 생겼다
- 3 단단해진 팀워크…일회일비 않는다

LG는 시즌 개막 후 지난 한달 동안 22경기를 치러 12승10패를 기록했다. 팀 순위는 9개 팀 중 5위. 호성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나쁜 결과도 아니다. LG 김기태 감독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4월을 보냈다고 자평했다. 김 감독은 4월에 얻은 소득을 3가지로 정리했다.

●주전·비주전의 전력차 최소화

김기태 감독은 “핵심 전력들이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이 공백을 젊은 선수들이 잘



김기태감독

메워줬다는 부분이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시즌 개막 직전 주장 이병규(9번)와 노장 최동수, 타격이 좋은 이병규(7번) 등을 부상과 부진 때문에 1군에서 제외했다. 시즌 초반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주전 포수 현재윤은 현재 오른쪽 엄지 관절로 전력에서 이탈해 있다. 이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김용의, 문선재, 정주현, 조윤준 등 젊은 선수들이 효과적으로 메워준 덕분에 LG는 개막 이후 한 달간 5할 이상의 승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슬기롭게 넘긴 3연패의 위기

김기태 감독은 “연패에 빠질 수 있는 위기가 있었는데, 선수들이 이를 슬기롭게 잘 이겨냈다. 강팀을 만나도 쉽게 지지 않는다는 힘이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LG는 22경기를 치르면서 2연패를 2차례 기록했지만, 3연패 이상은 한번도 겪지 않았다. 가장 큰 고비는 4월 16~18일 광주에서 치른 우승 후보 KIA와의 3연전이었다. 1·2차전을 내줘 시즌 첫 2연패를 당한 LG는 18일 3차전에서 7회까지 KIA에 8-12로 뒤졌다. 그러나 8회 대거 5득점하며 전세를 13-12로 뒤집었다. 이후 삼성에 다시 2연

패를 당했지만, 롯데를 상대로 연패의 사슬을 끊었다. 올 시즌 초반 달라진 LG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들이다. 다만 신생팀 NC에만 2패를 ‘진상’한 것은 옥에 티였다.

●단단한 팀워크를 통해 거듭난 팀 분위기

김기태 감독은 “경기 결과에 일회일비하지 않는 등 팀 분위기가 한결 좋아졌다. 단단한 팀워크를 통해서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이 무척 고무적이다”고 평가했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LG는 경기 결과에 따라 매번 팀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리는 편이었다. 그러나 올 시즌에는 비록 초반이기는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다는 게 구단 관계자들과 선수들의 얘기다. 개인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플레이를 통해 LG는 부족했던 팀워크를 조금씩 다져나가고 있다.

창원 | 최용석 기자

glyong@donga.com 트위터@glyong11



이대호 ‘5월 영광’ 어제인

작년 5월 한달간 8홈런19타점 ‘MVP 추억’
한국서도 급상승…4월이어 5월 폭발 기대

‘반갑다. 5월!’

5월이다. 또 다른 도약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 발군의 기량을 과시하며 4월을 화려하게 마감한 오릭스 이대호(31·사진)가 ‘기본 좋은 추억’을 간직한 5월을 맞이했다.

이대호는 4월 30일까지 올 시즌 팀이 치른 25경기 모두에 4번으로 선발 출장해 타율 0.392(97타수 38안타)에 5홈런 23타점, 출루율 0.455, 장타율 0.639의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퍼시픽리그 최다안타 1위, 타율·타점·장타율 2위, 홈런 공동 3위, 출루율 4위 등 도루를 제외한 공격 전 부문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대한민국 4번타자’의 위용을 한껏 과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동일 경기수 기준)의 성적(타율 0.233·2홈런·10타점)과 비교하면 놀라운 변화다.

이대호에게 5월이 반가운 이유는 지난해의 기본 좋은 기억 덕분이다. 지난 시즌 초반 부진을 거듭하던 그는 5월 들어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5월 한 달간 타율 0.322에 8홈런 19타점으로 퍼시픽리그 월간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했다. 이를 발판 삼아 7월에도 또 한번 월간 MVP를 거머쥐며 한국인 최초로 2차례 월간 MVP를 수상했고, 결국 타점 왕으로 일본무대 첫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감했다.

한국에서 뭘 때부터 이대호는 날씨가 한층 좋아지는 5월 이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지난해와 같은 경기수를 기준으로 성적을 비교했을 때 괄목상대할 4월을 보낸 올 시즌이다. 이대호가 5월에 얼마나 더 폭발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kimdohoney

추신수 2루타·결승득점…팀 승리 견인



리드오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출루와 득점이다. 신시내티 부동의 1번타자 추신수(31·사진)가 2루타에 이은 결승득점으로 팀의 2-1 승리에 앞장섰다.

추신수는 30일(한국시간)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1번 중견수로 선발 출장해 1회 상대 선발 애덤 웨인라이트의 초구를 때려 좌월 2루타를 뽑았다. 회생번트로 3루를 밟은 뒤 3번 조이 보토의 우전적시타로 선제 결승득점을 올렸다. 2루타는 시즌 7번째, 득점은 시즌 20번째였다. 3회와 5회에도 각각 선두타자로 타석에 들어섰지만 각각 1루 땅볼과 2루 땅볼로 아웃됐다. 8회에도 선두타자로 나섰지만 유격수 땅볼에 그쳤다. 4타수 1안타 1득점으로 경기를 마쳤고, 시즌 타율은 0.344에서 0.340으로 조금 낮아졌다. 신시내티는 9회말 마무리 아롤디스 차프만이 3타자를 잇달아 범타로 요리한 덕에 값진 1점차 승리를 낳았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rushkh

조시 월 2이닝7실점…다저스 콜로라도전 2-12 대패

LA 다저스가 30일(한국시간)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로라도와의 홈경기에서 선발투수 테드 린리와 2번째 투수 조시 월이 각각 3이닝 5실점(4자책), 2이닝 7실점으로 무너지는 바람에 2-12로 대패했다. 다저스는 과부하가 걸린 불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회초 2루수 스킵 슈마커를 마운드에 올렸다. 슈마커는 2안타 1볼넷을 내줬지만 무실점으로 9회를 마쳤다. 다저스 경기에서 야수가 마운드에 오른 것은 2009년 7월 28일 세인트루이스전 때 마크 로레타 이후 처음이다.

두산 박용만회장 초청 영수증 대주교 두산-KIA전 관전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및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이사장을 역임한 영수증 대주교가 서울대교구 신부들과 함께 두산그룹 박용만 회장의 초청으로 30일 잠실구장을 찾아 KIA-두산전을 관전했다. ‘바보의 나눔’은 고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2010년 설립된 전문모금기관으로, 박 회장은 3월 이곳에 성금 10억원을 전달한 바 있다.

재활 박석민, 2군 경찰야구단전서 2타수1안타

허리 통증으로 재활 중인 삼성 박석민이 30일 경찰야구단과의 경산 2군 경기에서 선발 출장해 2루타 1개를 때려내고 볼넷과 사구 1개씩을 얻어냈다. 2타수 1안타. 삼성 류중일 감독은 “통증이 전혀 없다고 한다. 이르면 1일, 또는 롯데와의 주말 3연전(3~5일)에 맞춰 1군 엔트리에 등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엔트리노트 <30일>

- 등롱=이우선(삼성) 임재철(두산) 고동진(한화)
- 말소=김태완(한화)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

스위치히터 서동욱 ‘좌타자 특명’…왜?

염경엽감독 “찾은 변화로 자기 것 못찾아”



넥센 염경엽 감독이 LG에서 이적한 스위치히터 서동욱(사진)에게 특명을 내렸다. 양쪽 타석에 서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좌타석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염 감독은 30일 대구 삼성전에 앞서 “서동욱은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을 염두에 두고 영입한 선수”라며 “앞으로 스위치히터가 아닌 좌타자로 활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내·외야를 두루 소화하는 서동욱은 4월 24일 포수 최경철과 맞트레이드돼 LG에서 넥센으로 이적했다. 염 감독이 LG 운영팀장과 수비코치로 일할 때부터 눈에 띄었던 전천후 멀티맨이다. 1루수가 주 포지션이던 서동욱에게 2루 수비를 집중적으로 가르친 인물도 염 감독이다. 서동욱은 새 팀에서도 1루수와 2루수, 좌익수까지 폭넓게 기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타석에선 다르다. 염 감독은 “일단 왼손 대타요원으로 기용하겠다. 선발로 나설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서동욱은 지금 전남 강진에 있는 넥센 2군에서 코칭스태프가 짜준 스케줄에 따라 좌타석 타격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염 감독은 이에 대해 “사실 왼쪽에서만 죽기 살기로 타격해도 3할을 못 치지 않나. 오른쪽에서 타율이 2할대 초중반을 땀는데, 굳이 스위치히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동욱은 프로 11년간 수차례 타격폼을 바꾸면서 끊임없이 발전을 모색했다. 그러나 염 감독은 “너무 자주 변화를 주다 보니, 자질은 충분히 뛰어난데도 자기 것을 찾을 시간이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왼쪽 타석에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다면 오른손으로도 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나 적어도 좌타석 타율이 2할8푼이 되기 전까지는 한쪽으로만 꾸준히 치는 게 낫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구 |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goodgoer



결국 이 점수가 결승점이 됐다. 30일 마산 LG전에서 1-1로 맞선 6회말 1사 1·3루서 NC 권회동의 좌익수 최성환이 때 3루주자 박정준(오른쪽)이 득점에 성공하고 있다. NC는 천신만고 끝에 시즌 4승째를 챙겼다.

창원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bluemarine007

두산 ‘민을맨’ 오현택 “첫 마무리 중압감 다르더라” 9경기 2승1세이브 방어율 ‘제로’

김감독 “핵심” 마무리 기용 의사

두산 사이드암 오현택(28·사진)은 시즌 초반 팀의 핵심투수 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잠실 KIA전 이전까지 오현택은 9경기에 등판해 2승1세이브를 기록 중이었다. 16이닝 동안 자책점은 1 점도 주지 않아 방어율은 ‘제로’였다.

현재 두산 불펜에서 김진욱 감독의 가장 깊은 신뢰를 받고 있는 투수가 바로 오현택이다. 김 감독은 “우리 팀 계투 핵심이다. 30~40개의 투구도 가능해 통릴리프가 필요한 경

기에서도 3명이 던질 몫을 혼자서 다하고 있다. 정말 고마운 존재다”며 든든해했다. 오현택은 4월 28일 마산 NC전에선 3-1로 앞선 9회 마무리로 등판해 1안타 무실점으로 세이브를 올렸다. 오현택의 데뷔 첫 세이브이기도 했다. 오현택은 30일 KIA전을 앞두고 “평소 긴장을 안 하는 편인데, 마무리 역할로 올라가니 긴장이 되더라. 마무리라는 중압감은 확실히 다른가보다. 잠시나마 마무리투수들의 심정을 느낄 수 있었다. 첫 세이브였기 때문

에 (28일 경기)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현재 가장 믿음이 가는 투수다. 연투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릴리프로 활용하면서, 투구 일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마지막 1이닝을 맡길 생각이다. 계투 중 가장 볼이 좋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오현택을 쓸 수밖에 없다”고 지속적인 마무리 기용 의사를 내비쳤다. 오현택은 “군생활을 통해 절실함을 느꼈다. 어떤 보직이든 상관없다. 감독님



이 맡겨주시는 자리에서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잠실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stopwook15